

제 1 교시

2017학년도 6월 모의평가 대비 설승환 모의고사

# 국어 영역

홀수형

성명

수험 번호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십시오.  

<p style="text-align: center;"><b>울림이 있어야 삶이 신선하고 활기차다</b></p>
--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평가원을 닦고 싶은 설승환 모의고사





[3~5] 다음은 화법과 작문 수업 시간에 실시한 모의 면접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면접자 : 반갑습니다. 학생이 우리 대학의 국어교육과에 지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면접자 : 고등학교 1학년 때 국어 선생님의 추천으로 △△대학에서 주최한 토론 대회에 참가했는데, 거기서 금상을 받았습니다. 심사 위원들 중 한 분이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는 소설가셨는데, 제가 답변을 굉장히 조리 있게 잘 한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각종 말하기 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학년이 되면서 제 적성에 맞는 진로가 무엇인지 고민해본 결과, 올바르게 말하는 방법을 직접 가르쳐 보고 싶어서 국어교육과에 가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면접자 : 소설가에게 칭찬을 들을 만큼 말하기에 재능이 있었던군요. 자신이 잘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서 그것을 진로와 연결하여 학과를 선택하였다는 점이 좋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제출한 자기소개서를 보니 희망 진로에 국어교육과 교수라고 적었네요. 국어교육과 교수가 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면접자 : (면접관과 시선을 맞추며) 네, 저는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도 보람 있지만,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을 키워 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에게 존경받는 교수가 되고 싶습니다.

면접자 : 음……. (잠시 시간을 두고) 그렇다면 국어교육과에 입학한 후의 학업 계획에 대해 말해주겠어요?

피면접자 : 예, 일단 입학하면 교육과정에 맞춰서 열심히 공부하되, 평소에 흥미를 느꼈던 말하기와 관련된 과목들은 심화 전공을 해 볼 생각입니다. 미리 학과 홈페이지에 있는 교육과정을 살펴보니, 의사소통과 관련된 과목들이 많아서 저에게 딱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면접자 : 그렇군요. 음……, 우리 국어교육과에 진학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교내에서 했던 활동들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피면접자 : 우선 인문학 책읽기 동아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2학년 때는 동아리 회장을 맡으면서, 1년 동안 입을 책들의 목록을 정하여 독서 토론 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그리고 함께 공부하는 친한 친구들과 2주에 한 번씩 토요일마다 시사 토론을 하면서, 말하기 실력을 더욱 증진하고자 최선을 다 해왔습니다.

면접자 : 꿈을 향한 의지가 대단하네요. 시사 토론을 꾸준히 해왔다고 하니, 다음 질문은 쉽게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청소년들의 욕설 사용이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욕설 사용을 줄이기 위해, 욕설의 뜻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인가요? 그런 입장이라면 왜 욕설의 뜻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피면접자 : [가]

3. 위 ‘모의 면접’에서 ‘면접자’의 질문과 ‘피면접자’의 답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피면접자’는 자신에게 의미 있는 경험을 언급하여 ‘면접자’로 하여금 신뢰감을 확보하고 있다.
- ② ‘피면접자’는 자신의 답변 내용을 ‘면접자’가 대략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내용을 요약하고 있다.
- ③ ‘피면접자’는 ‘면접자’가 한 질문의 의도를 추론하여 질문 내용에 대한 서로 간의 의견 차이를 좁혀나가고 있다.
- ④ ‘면접자’는 ‘피면접자’의 답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나의 질문을 여러 가지로 나누어 단계별로 제시하고 있다.
- ⑤ ‘면접자’는 ‘피면접자’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하여 그와 관련된 ‘피면접자’의 견해를 더 알아보기 위해 보충 질문을 하고 있다.

4. 위 ‘모의 면접’의 흐름을 고려할 때, [가]의 답변을 위한 피면접자의 사고 과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욕설의 뜻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한 계기를 묻고 있으니 사실에 관한 질문이군. 욕설을 과도하게 들어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한 청소년의 실제 사례를 근거로 들면서 답변해야겠어.
- ② 욕설의 뜻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한 계기를 묻고 있으니 의견에 관한 질문이군. 청소년이 얼마나 욕설을 많이 사용하는지를 조사한 관련 단체의 통계 자료를 근거로 들면서 답변해야겠어.
- ③ 욕설의 뜻을 가르치려는 이유를 묻고 있으니 사실에 관한 질문이군. 욕설을 자주 사용하는 청소년에게 언어순화 프로그램을 적용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을 근거로 들면서 답변해야겠어.
- ④ 욕설의 뜻을 가르치려는 이유를 묻고 있으니 의견에 관한 질문이군. 잦은 욕설 사용이 청소년의 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언어심리학자의 견해를 근거로 들면서 답변해야겠어.
- ⑤ 욕설의 뜻을 잘 알고 있는지 그 배경지식을 묻고 있으니 의견에 관한 질문이군. 욕설의 정의와 쓰임에 대해 전문적으로 연구한 국어국문학과 교수의 학술논문을 근거로 들면서 답변해야겠어.

5. <보기>는 위의 ‘모의 면접’을 관찰한 학생들이 나눈 대화이다. ‘모의 면접’을 A라 하고 <보기>를 B라 할 때, A와 B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학생 1 : 나는 면접자가 피면접자의 답변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질문하는 모습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  
 학생 2 : 나는 피면접자가 면접자의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답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웠어.

- ① A, B 모두 가상적 청자를 고려하는 의사소통 활동이다.
- ② A는 B에 비해 시·공간적 제약을 받는 의사소통 활동이다.
- ③ A는 B에 비해 협동과 양보를 통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의사소통 활동이다.
- ④ B는 A에 비해 경어적 표현을 사용하는 의사소통 활동이다.
- ⑤ B는 A에 비해 사실적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소통 활동이다.

[6~8] (가)는 협동 작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생들 간의 대화이고, (나)는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쓴 개요이며, (다)는 초고의 서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협동 작문 과제]

에너지의 날을 앞두고 있는 지금, '대체 에너지'를 주제로 하여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논설문을 작성해 보자.

정민 : 협동 작문 과제로 '논설문 쓰기'가 제시되었어. 어떠한 사항들에 유의해서 과제를 해결해야 할까?

지현 : 우리 학교의 학생들을 예상 독자로 삼아야 한다는 사실에 특히 유의해야 할 것 같아.

유정 : 나도 그렇게 생각해. 대체 에너지가 왜 활발하게 개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우리 학교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글을 쓰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

태희 : 주변의 또래 친구들을 보면, 대체 에너지의 개념이 뭔지, 왜 대체 에너지를 개발해야 하는지,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있어. 이는 우리 학교 학생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에너지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이지 않으니까... 이를 고려해서 글을 써야겠어.

(나)

I. 서론 - 대체 에너지의 개념과 대체 에너지 개발의 필요성

II. 본론

1. 대체 에너지 개발 현황

가. 국외의 대체 에너지 개발 현황

나. 국내의 대체 에너지 개발 현황

2. 대체 에너지 개발의 장·단점

가. 대체 에너지 개발의 장점

나. 대체 에너지 개발의 단점

3. 대체 에너지 개발의 촉진 방안

III. 결론 -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는 대체 에너지 개발을 촉구

(다)

대체 에너지는 화석 연료와 원자력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 자원으로, 일반적으로 ㉠ 고갈되어지지 않는 재생 에너지를 말한다. 예를 들면 태양광, 지열, 조력, 풍력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대체 에너지는 깨끗하면서도 고갈될 염려가 없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 그리고 효율성과 경제성이 낮아,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현대 문명 사회에서는 실용성이 적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 또한 대체 에너지는 대용량의 에너지원으로는 부적합하다.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깨끗하고 안전하게 ㉣ 응용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 개발이 필요하다. ㉤ 이런 의미에서 대체 에너지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6. (가)의 대화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예상 독자의 특성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글의 내용 구성 방향을 결정하고 있다.
- ② 글의 주제와 관련하여 참신하고 독창적인 내용을 선정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 ③ 협동 작문 과제의 취지에 맞는 자료를 선정하고 해당 자료의 수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④ 글의 중심 소재를 부각하면서 글쓰기 전부터 지니고 있었던 배경 지식을 배제해야 함을 검토하고 있다.
- ⑤ 완성된 글을 읽는 과정에서 나타날 예상 독자의 반응을 예상하여 글의 내용 전개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7. (나)의 개요를 작성한 후, <보기>의 세 가지 글감을 접하였다.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보완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ㄱ. 독일은 전체 전기 소비량의 9.3%를 대체 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에서 공급하여 사용할 정도로 대체 에너지 기술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 ㄴ.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기, 풍력 발전기는 그렇게 많지 않다. 게다가 이러한 발전기들은 기후의 영향을 받아 보조 설비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비효율적이라는 견해가 두드러진다. 또한 소규모 발전에만 유용하다는 평가도 받고 있는 실정이다.
- ㄷ. 정부가 대체 에너지 개발에 대한 지원 금액을 올해부터 매년 20% 이상씩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전세계적으로 대체 에너지 시장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예상된다.

- ① 'II-1-가'에는 ㄱ을 포함하여 '다른 나라의 대체 에너지 개발과 활용 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② 'II-1-나'에는 ㄴ에서 착안하여 '풍력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모습'을 사진과 함께 사례로 제시한다.
- ③ 'II-2-나'에는 ㄴ을 근거로 들어 '대체 에너지의 경제성 미흡'이라는 하위 항목을 설정한다.
- ④ 'II-3'에는 ㄷ과 관계가 깊은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예산 확대'라는 하위 항목을 설정한다.
- ⑤ 'III'에는 ㄷ에서 다른 '대체 에너지 시장의 전세계적 확대'에 주목하여, 마지막 문장에 앞으로 대체 에너지에 많은 관심이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8. (다)의 ㉠~㉤을 고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피동 표현이 중복되었으므로 '고갈되지'로 고친다.
- ② ㉡ : 앞뒤의 내용을 고려하여 '그러나'로 바꾼다.
- ③ ㉢ : 앞 문장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삭제한다.
- ④ ㉣ : 문맥상 부적절한 단어이므로 '사용'으로 고친다.
- ⑤ ㉤ : 글의 흐름을 고려하여 바로 앞의 문장과 순서를 바꾼다.

[9~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청소년 영화제를 취재하고 온 교지 편집반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작문 과제를 부여하였다.

**작문 과제 1**  
 청소년 영화제에 다녀온 소감을 한 편의 글로 써 보자.

**작문 과제 2**  
 현장에서 취재한 자료를 바탕으로 청소년 영화제에 참가한 우리 학교의 '영화 동아리'를 소개하는 기사를 써 보자.

9. 다음은 [작문 과제 1]을 수행한 것이다. ㉠~㉥ 중 <학생의 글>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개요 작성		구체화하기
처음	청소년 영화제에 가게 된 동기	→ 청소년 영화제를 찾아가게 된 이유를 드러내자. .... ㉠
중간	청소년 영화제의 진행 양상	→ 청소년 영화제 현장의 모습을 공간별로 나누어서 제시하자. .... ㉡
	작품 소개	→ 감명 깊게 보았던 작품의 내용과 특징적인 면을 비유적으로 소개하자. ... ㉢
끝	영화를 출품한 학생들에 대한 느낌	→ 영화 제작에 참가한 학생에 대한 느낌을 '작품 소개'와 묶어서 한 문단으로 쓰자. .... ㉣
	다녀온 뒤 느낀 점	→ 나의 반성과 앞으로의 다짐을 중심으로 마무리하자. .... ㉤

<학생의 글>

지난 주말, 교지 편집반 친구들과 함께 청소년 영화제에 다녀왔다. 평소에 영화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현장을 직접 찾아가 청소년 영화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확인하고 싶었다. 시내의 영화관을 빌려 진행된 영화제에서는 30편이 넘는 작품이 상영되고 있었다. 영화관 안의 제1관에서는 이번 영화제의 지정 주제인 '청소년의 사랑'을 다룬 작품들이, 제2관에서는 자유 주제를 다룬 작품들이 상영되고 있었고, 영화관 밖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팸플릿을 나눠 주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모두 세 편의 영화를 보았는데, 그중 소설 '소나기'를 활용한 작품과 한 소녀의 슬픈 짝사랑을 다룬 애니메이션이 인상 깊었다. 특히 두 번째 작품은 편집 기술이 매우 신선했어서 영화를 보는 내내 긴장감을 놓을 수 없었다. 작품 상영이 끝날 때마다 영화 제작에 참여했던 또래 친구들이 무대에 올라와 인사를 했는데,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 정말 부러웠다. 이번 영화제를 다녀온 뒤, 이렇게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도 내 꿈인 기자가 되기 위해 교지 편집반 활동에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다짐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0. 다음은 [작문 과제 2]를 수행하기 위한 취재 자료의 활용 전략을 살핀 것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취재 자료>

- 영화 동아리 '레디 액션'의 출품작 : <사랑비>
- 출품작의 특징
  -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있는 법한 청소년들의 풋풋한 사랑을 유쾌하게 다뤘.
- 동아리 대표 인터뷰
  - 처음에는 촬영 장비, 소품, 편집 시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음. .... ㉠
  - 동아리 활동과 학교의 수업은 병행해야 했기 때문에 함께 작업할 시간이 정하는 일이 쉽지 않았음 ... ㉡
  - 촬영 장비, 소품, 편집 시설은 영화 동아리 출신의 대학교 선배들이 모두 지원해 주었음. .... ㉢
  - 배우들의 연기가 초보적인 수준이었으나 때 묻지 않은 순수한 연기로 오히려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음 ... ㉣
  - 힘들었지만 서로 배려하며 협력했기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함. .... ㉤

교지에 실을 기사 쓰기		취재 자료 활용 전략
목적	영화 동아리의 활동을 소개한다.	→ 취재 자료를 종합하여 전반적인 활동상을 제시한다.
예상 독자의 요구	학우들은 작품 제작 과정의 어려움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궁금해 할 것이다.	→ '동아리 대표 인터뷰' 중에서 [가] 를 활용하여 구체적인 난관과 그것을 자체적으로 극복한 원동력이 드러나게 한다.

- ① ㉠와 ㉢      ② ㉠와 ㉡      ③ ㉡와 ㉢  
 ④ ㉡와 ㉤      ⑤ ㉣와 ㉤

11. <보기>를 바탕으로 음운 변동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음운 변동은 어떤 음운이 환경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그 결과에 따라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의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교체는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이고, 탈락은 두 음운 중에서 어느 하나가 없어지는 현상이며, 첨가는 없던 음운이 새롭게 추가되는 현상이고, 축약은 두 음운이 합쳐져 하나의 음운으로 줄어드는 현상이다. 이러한 음운 변동은 위의 네 가지 중 한 가지의 종류만 일어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종류가 일어날 수도 있다.

- ① ‘색연필’은 두 번의 교체를 거쳐 [생년필]로 발음되는군.
- ② ‘쌍지’는 한 번의 교체와 한 번의 축약을 거쳐 [싸치]로 발음되는군.
- ③ ‘닭고’는 한 번의 탈락과 한 번의 첨가를 거쳐 [닥꼬]로 발음되는군.
- ④ ‘많다’는 한 번의 축약과 한 번의 탈락을 거쳐 [만:타]로 발음되는군.
- ⑤ ‘연꽃잎’은 세 번의 교체와 한 번의 첨가를 거쳐 [연꼴님]으로 발음되는군.

12.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르-’가 포함되어 있는 용언은 활용을 할 때 어간과 어미의 형태가 달라진다.

(가) 민수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을 치르다.  
 (나) 외모가 똑같은 쌍둥이도 서로 성격이 다르다.  
 (다) 비가 온 뒤라 그런지 하늘이 유난히 푸르다.

(가)의 ‘치르다’는 어간 ‘치르-’에 모음 어미 ‘어’가 결합하면 어간의 ‘-’가 탈락하여 ‘치러’가 되는데, 이는 ‘바쁘다’의 어간 ‘바쁘-’에 모음 어미 ‘아’가 결합할 때 어간의 ‘-’가 탈락하여 ‘바빠’가 되는 것처럼 ㉠ 일반적인 음운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규칙 활용의 예이다. (나)의 ‘다르다’는 어간 ‘다르-’에 모음 어미 ‘아’가 결합하면 어간의 ‘-’가 탈락하고 어간에 ‘르’이 덧생겨 ‘달라’가 되는데, 이는 ㉡ 어간의 기본 형태가 바뀌는 불규칙 활용의 예이다. (다)의 ‘푸르다’는 어간 ‘푸르-’에 모음 어미 ‘어’가 결합하면 어미가 ‘리’로 바뀌어 ‘푸르러’가 되는데, 이는 ㉢ 어미의 기본 형태가 바뀌는 불규칙 활용의 예이다.

- ① ㉠ — A : 민수가 그렇게 부모님 자랑을 할 줄은 몰랐어.  
— B : 부모님을 유난히 따르다보니 그런가봐.
- ② ㉡ — A : 오늘 현우 봤어? 다리를 다친 것 같던데.  
— B : 응, 도서관에 들르다가 돌에 걸려 넘어졌대.
- ③ ㉢ — A : 철수 방이 예상과 다르게 지저분해서 놀랐어.  
— B : 응. 철수가 생각보다는 게으르다고 하더라고.
- ④ ㉣ — A : 다정아, 이 호출용 버튼은 어떻게 쓰는 거야?  
— B : 가운데 부분을 2초 정도만 누르다가 떼면 돼.
- ⑤ ㉤ — A : 이상하다. 아직까지 아무도 오지 않은 것 같네?  
— B : 그것 봐. 내가 약속 시간이 이르다고 했잖아.

13. 다음 중 문법적으로 가장 정확한 문장은?

- ① 교육과학기술부는 새로운 교과서를 편찬함에 있어서 전인 교육의 충실화에 두었다.
- ② 노사 간에 지속적인 대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불필요한 공방으로 인하여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다.
- ③ 지금까지는 그 문제를 회피하기만 했지만 이제는 이와 같은 관례를 깨뜨릴 때도 되었다는 생각이다.
- ④ 보안과 관련된 사항에는 각종 비문뿐만 아니라 부대의 위치 및 지휘관의 신상, 활동 등도 포함된다.
- ⑤ 내가 주장하고 싶은 점은 대중 스타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14. 다음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되다** [되다/웨다] **동자**

㉠ 【...이/가】

[1] 새로운 신분이나 지위를 가지다.  
 ¶ 그 집 아들이 반장이 **되었다**.

[2] 다른 것으로 바뀌거나 변하다.  
 ¶ 저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

[3] 어떤 때나 시기, 상태에 이르다.  
 ¶ 이제는 계절이 봄이 **되었다**.

㉡ 【...으로】

[1] 어떤 재료나 성분으로 이루어지다.  
 ¶ 나무로 **된** 책상

[2] 어떤 형태나 구조로 이루어지다.  
 ¶ 타원형으로 **된** 탁자

㉢ 【...게】 (‘-게’ 대신에 ‘잘, 적당히, 원하는 대로’ 따위의 부사나 부사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1] 어떤 사물이나 현상이 생겨나거나 만들어지다.  
 ¶ 밥이 맛있게 **되었다**.

[2] 일이 잘 이루어지다.  
 ¶ 사업이 깔끔하게 **되고** 있다.

**-되다**<sup>5</sup> **접사**

㉠ (일부 명사 뒤에 붙어) ‘피동’의 뜻을 더하고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  
 ¶ 가결**되다**/사용**되다**/형성**되다**

㉡ (몇몇 명사, 어근, 부사 뒤에 붙어)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  
 ¶ 거짓**되다**/막**되다**/안**되다**

- ① ‘되다’의 발음 정보를 보니, ‘되다’는 [되다]로도 발음할 수 있고 [웨다]로도 발음할 수 있으므로 표준 발음이 2개로군.
- ② ‘되다’와 ‘-되다<sup>5</sup>’의 품사 정보 및 뜻풀이를 보니, ‘되다’는 단어의 자격을 가지지만, ‘-되다<sup>5</sup>’는 단어의 자격을 가지지 못하겠군.
- ③ ‘되다’의 뜻풀이와 용례를 보니, ‘되다’**㉡**[2]의 용례로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게 되었어요.’를 추가할 수 있겠군.
- ④ ‘되다’의 문형 정보 및 용례를 보니, ‘되다’**㉠**, **㉡**, **㉢**는 모두 두 자리 서술어이지만, ‘되다’**㉡**, ‘되다’**㉢**는 ‘되다’**㉠**과 달리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군.
- ⑤ ‘-되다<sup>5</sup>’의 뜻풀이와 용례를 보니, ‘결정**되다**’는 명사 ‘결정’에 ‘-되다<sup>5</sup>’가 붙어 동사로 만들어진 단어, ‘참**되다**’는 명사 ‘참’에 ‘-되다<sup>5</sup>’가 붙어 형용사로 만들어진 단어이겠군.

15. 다음 중세 국어 자료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그피 善慧(선혜) 부텃기 가아 ㉠ 出家(출가)호샤 世尊(세존)스귀  
 솔뵤샤디 ㉡ 내 어저의 다섯 가짓 ㉢ 꾸물 ㉣ 꾸우니 호나호  
 바르래 누보며 돌흔 ㉤ 須彌山(수미산)을 베며 세호 衆生  
 (중생)돌히 ㉥ 내 몸 ㉦ 안해 들며 네호 소내 히를 자브며  
 다스스 소내 드롤 ㉧ 자보니 ㉨ 世尊(세존)하 날 爲(위)호야  
 ㉩ 니르쇼셔

- 「월인석보」 -

**【현대어 풀이】**

그때 선혜 부처께 가 출가하시어 세존께 아뢰시되, “내 어저께 다섯 가지의 꿈을 꾸니, 하나는 바다에 누우며, 들은 수미산을 베며, 셋은 중생들이 내 몸 안에 들어오며, 넷은 손에 해를 잡으며, 다섯은 손에 달을 잡으니, 세존이시여 날 위하여 가르쳐주소서.”

- ① ㉠의 ‘-샤-’가 높이는 인물과 ㉡의 ‘-쇼셔’가 높이는 인물은 동일하군.
- ② ㉡의 ‘내’와 ㉥의 ‘내’는 문장 속에서의 기능이 동일한 문장 성분이군.
- ③ ㉢의 ‘-을’과 ㉤의 ‘-을’은 앞말의 음운 환경에 따라 목적격 조사의 형태를 달리한 것이군.
- ④ ㉣과 ㉤에는 앞뒤의 문장을 대등하게 이어 주는 연결 어미가 포함되어 있군.
- ⑤ ㉦과 ㉧에는 듣는 이를 높이기 위하여 높임의 의미를 지닌 보조사를 사용하였군.

[16~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프랑스의 정신분석학자이자 철학자인 자크 라캉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토대로 근대 철학의 사상적 충추가 된 ‘나’라는 절대 주체 개념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비판하여 새로운 주체 개념을 모색하였다. 그는 이 과정에서 정신세계를 구성하는 세 가지 질서인 ‘상상계’, ‘상징계’, ‘실재계’를 통해 주체가 형성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라캉은 인간의 정신이 ‘거울 단계’라고 불리는 ‘상상적 자아 형성’의 과정을 거쳐 언어에 의한 주체 소외의 과정을 핵심으로 하는 ‘상징적 주체 형성’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무의식의 주체로 형성된다고 하였다. 특히 라캉은 거울 단계를 통해 자아의 자율성이 얼마나 허구적인지 밝히고자 했다. 그에 따르면, 거울 단계란 어린 아이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신체 ㉠ 이미지를 매개로 해서 ㉡ 정체성을 형성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외적 세계를 구성하는 단계이다. 대략 생후 6~18개월 정도 되는 아이는 처음에 거울에 비친 자신의 이미지를 외부 대상과 구별하지 못한다.

그러다 어느 순간 아이는 자신의 이미지를 알아보게 되고, 자신의 이미지에 ㉔ 매료되어 그것을 붙잡으려 하고 떠날 줄을 모른다. 이렇듯 단순해 보이는 거울 이미지는 이후 모든 심리 발달 단계에서 원형으로 작용한다.

거울 단계의 경험이 보여주는 것은 인식의 기준이 되는 자명한 자의식이나 선형적이고 절대적인 자아는 없다는 것이다. 라캉에 따르면, 자아는 어느 순간 자신의 이미지를 다른 대상 이미지로 부터 분리하고 그것에 ㉕ 고착됨으로써 형성된다. 거울 단계에서 아이들이 자신의 이미지에 열광하는 이유는 이 이미지가 처음으로 자신의 가시화된 신체를 보여주면서 **존재감**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이다. 외부로 가시화된 이미지는 내 것이기도 하지만 실은 주체의 나르시시즘\*이 투사된 타자적 대상이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단지 신체가 가시적 공간에 반영된 것으로 나와 마주해 나의 시선을 머물게 하는 **그림자**이며, 나의 내면을 보여주지 못하는 대상일 뿐이기에 주체에 대해 언제나 타자로만 머물며 이상화되기 쉽다. 결국 거울 단계는 매우 행복한 단계이지만, 허구적 ㉖ 구축이 이루어지는 단계이고 **타자**를 통해 **자아**가 구성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자기 소외적이라고 할 수 있다. 라캉은 “주체가 스스로를 발견하고 제일 먼저 느끼는 곳은 타자속에 서다.”라고 말한 바 있다.

여기서 타자는 실제 타자를 의미할 수도 있고,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일 수도 있다. 더 나아가 주체가 **자신**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대상**은 주체의 타자다. 인간은 타자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을 때 주체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조적으로 인간의 **욕망**은 나의 것이 아니라 타인의 욕망과 그것이 겨냥하는 대상을 향하게 된다. 욕망은 순수하게 나의 **내면적 의지**를 표현하는 것 같지만, 타자에게 인정받으려 하고 타자가 욕망하는 것을 욕망한다는 점에서 소외의 표현이기도 하다. 자아가 타자라는 말은 이런 소외된 상황을 표현하는 말이다.

라캉은 ‘프로이트로의 ㉗ 복귀’를 주장하였지만,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에 머물지 않고 철학과 교차하는 주제인 주체나 욕망과 같은 개념들을 적극적으로 탐구함으로써 정신분석을 새롭고 넓은 지평으로 발전시켰다. 그러면서 무의식의 주체 연구를 위해 철학을 경계했던 프로이트와 달리 철학과 언어학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정신분석을 인문학의 ㉘ **위상**으로 끌어올렸다.

\* 나르시시즘 :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도취에 빠지는 일.

16. 밑글에서 다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라캉의 정신분석 이론에서 주체가 형성되는 과정
- ② 라캉의 정신분석 이론에서 의식과 무의식을 구분한 이유
- ③ 라캉의 정신분석 이론에서의 욕망의 의미
- ④ 라캉의 정신분석 이론과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의 차이점
- ⑤ 라캉의 정신분석 이론이 지니는 의의

17. ㉙:㉚의 관계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㉙. 그림자 : 존재감  
 ㉚. 타자 : 자아  
 ㉛. 대상 : 자신  
 ㉜. 욕망 : 내면적 의지

- ① ㉙, ㉛
- ② ㉚, ㉜
- ③ ㉙, ㉚, ㉛
- ④ ㉚, ㉜, ㉛
- ⑤ ㉙, ㉚, ㉜, ㉛

18. 밑글의 ‘자크 라캉’과 <보기>의 ‘르네 지라르’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르네 지라르’는 ‘욕망의 삼각형’에 주목하여, 자본주의 시대 이후에 나타나는 주체의 욕망이 자연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중개자’를 거쳐 비스듬하게 상승하는 ‘간접화된 욕망’이라고 보았다. 예를 들어, 소설 『돈키호테』에서 주인공인 돈키호테는 이상적인 방랑의 기사가 되고자 하는데, 돈키호테의 이러한 욕망은 주체적인 욕망이 아니라, 전설의 기사인 ‘아마디스’를 모방한 결과이다. 즉, 돈키호테는 아마디스를 욕망의 중개자로 삼아 이상적인 방랑의 기사가 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라르는 욕망의 대상과 중개자를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욕망이 강렬해지면 주체가 엄청난 고통 속에 빠지지만, 그 욕망의 정체를 알게 되는 마지막 순간에 ‘전향’이라는 종교적인 구원에 도달한다는 것을 밝혔다.

- ① ‘라캉’은 ‘지라르’와 달리 욕망의 강렬한 정도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군.
- ② ‘라캉’은 주체의 입장에서 욕망을 바라보았고, ‘지라르’는 타자의 입장에서 욕망을 바라보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군.
- ③ ‘라캉’은 욕망을 철학적으로 조명하였고, ‘지라르’는 더 나아가 욕망을 종교적 의미와 연결시켰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군.
- ④ ‘지라르’가 말한 주체가 중개자를 거쳐 대상을 욕망하는 과정은, ‘라캉’의 거울 단계에서 자아가 겪는 경험과 유사하겠군.
- ⑤ ‘라캉’과 ‘지라르’는 주체가 대상을 자발적으로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고 피력한다는 점에서 ‘절대 주체’의 개념을 비판적으로 보겠군.

19. ㉙~㉜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㉙ :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홀리게 함.
- ② ㉚ : 무엇에 정신이 아주 쏠리어 헤어지지 못함.
- ③ ㉛ : 체제, 체계 따위의 기초를 닦아 세움.
- ④ ㉜ : 본디의 자리나 상태로 되돌아감.
- ⑤ ㉜ : 어떤 사물이 다른 사물과의 관계 속에서 가지는 위치나 상태

[20~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투표 참여 이론이란 누가 그리고 왜 투표에 참여하거나 불참하는지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다. 투표 참여율을 통해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어떤 특성을 가진 유권자가 왜 투표하고 기권하는지를 이해하면 기권자가 투표를 할 수 있게끔 ㉠ 끌어들이 수 있으므로 투표 참여 이론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투표 참여 이론에는 ‘사회경제적 지위 이론’, ‘동원투표 이론’, ‘합리적 선택 이론’ 등이 있다.

유권자의 교육수준, 소득수준, 직업 등으로 측정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지위는 유권자의 투표 참여에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 ‘사회경제적 지위 이론’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유권자가 지위가 낮은 유권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지위 이론’은 경험적으로 검토되지 않은 사례가 많다. 실제로 한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정치 냉소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기권을 하는 경향이 크다고 한다.

㉢ ‘동원투표 이론’은 유권자들이 외부의 압력이나 권유에 의한 동원으로 투표를 한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후보자들이 자신의 가족, 학연, 지연 등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유권자들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하여 자신의 지지표를 확보하는 경우, 선거관청이 유권자들에게 투표를 권유하는 경우 등이 모두 동원투표의 사례라 할 수 있다. 유권자가 동원에 민감할수록 투표에 참여할 확률이 높아지는데, 이러한 동원투표는 양적으로는 투표 참여의 확대를 ㉣ 가져올 수 있지만 결국에는 투표의 질적 저하를 불러오기도 한다.

㉤ ‘합리적 선택 이론’은 유권자가 자신이 투표에 참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검토한 후 투표에 참여한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다운즈가 제시한 ‘기대효용 모델’에서 비롯되었는데, 이 모델에 의하면 투표 결과로 얻게 될 이익의 기댓값이 투표 참여에 ㉥ 드는 비용보다 클 때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한다. 이러한 조건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A]  $PB - C > 0$

여기에서 P(probability)는 유권자 개인이 주관적으로 생각하였을 때, 자신이 투표를 함으로써 증가되는 지지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을 말한다. B(benefit)는 유권자 자신이 투표한 후보자가 당선되었을 때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는 효용과, 다른 후보자가 당선되었을 때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는 효용간의 차이이다. 그리고 C는 투표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물질적, 시간적 비용을 ㉦ 뜻한다.

합리적 선택 이론에 의하면, 사회경제적 지위 이론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큰 이유는 상대적으로 높은 정치적 효능감을 ㉧ 지니고 있어서 투표 참여를 통해 좀 더 많은 편익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또한 동원투표 이론에서 외부의 동원 압력에 민감한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큰 이유는 동원의 압력을 거부함으로써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더 크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20.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투표 참여 이론과 관련하여 문제적인 두 입장을 제시한 다음, 이에 대한 해결책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 ② 투표 참여 이론이 발달해 온 과정을 순차적으로 제시한 다음, 각 이론들의 한계와 의의를 평가하고 있다.
- ③ 투표 참여에 대한 일반적인 통념을 비판한 다음, 투표 참여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 ④ 투표 참여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을 소개한 다음, 그 중 한 관점에서 다른 관점들을 조명하고 있다.
- ⑤ 투표 참여에 대한 주요 쟁점을 설명한 다음, 대표적인 사례들을 분석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21. 윗글의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는 고졸 유권자보다 대졸 유권자가 정치 참여를 비판적으로 본다 고 간주한다.
- ② ㉢에 의하면 정당이 당원들의 인력을 활용하여 그 유권자들을 투표에 참여시킨 경우도 동원투표의 사례이다.
- ③ ㉣에 의하면 동원투표는 도시보다는 권위주의적 공동체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농촌에서 빈번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 ④ ㉤에서는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할 때 들어가는 비용과 투표를 함으로써 발생할 이익을 상호 비교하여 투표 참여 여부를 판단한다고 주장한다.
- ⑤ ㉡에서는 어떤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는지에 관심을 두고 있고, ㉤에서는 유권자들이 왜 투표를 하는지에 관심을 두고 있다.

22. [A]를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PB-C’의 값이 0에 가까워질수록 투표에 참여할 확률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 ② B와 C가 일치하는 경우에 투표에 참여할 확률이 가장 높게 나타날 것이다.
- ③ 유권자가 외부의 동원 압력에 민감할수록 C의 증가에 의한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이다.
- ④ 유권자가 자발적으로 투표에 참여한 경우에는 기대효용 모델의 수식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다.
- ⑤ 자신의 한 표가 지지하는 후보자의 당선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단하는 유권자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23.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 포용할
- ② ㉡ : 실현할
- ③ ㉢ : 내재되는
- ④ ㉣ : 암시한다
- ⑤ ㉤ : 소지하고

[24~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풍속화와 함께 조선 후기 미술을 대표하는 ‘진경산수화’는, 중국 회화의 형식에 의존하여 관념성이 짙은 작품들 위주로 창작되었던 조선 중기까지의 회화에 새로운 변화를 몰고 왔다. 진경산수화에서 ‘진경’은 말 그대로 실제의 경치를 의미한다. 그래서 진경산수화라는 말에는 자연의 아름다운 기상을 그리되, 머릿속에서 이상화된 관념으로 존재하는 자연이 아니라 실제 우리나라의 자연을 사실적으로 그린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중국의 자연을 소재로 삼아 중국적 양식에 연연 하였던 기존의 경향에서 벗어나, 우리나라의 산천을 소재로 삼아 우리만의 고유한 화풍을 드러냈다는 데에서 진경산수화의 참 의미가 있다.

그런데 진경산수화가 실제의 경치를 그려냈다면 ‘실경산수화’라는 말을 썼어도 되었을 텐데, 왜 ‘실경’ 대신에 ‘진경’이라는 말을 쓴 것일까? 이는 ‘진경’이 ‘신선이 사는 곳’, ‘깨끗한 땅’이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최초의 한자사전인 「설문해자」에 의하면, ‘진’은 ‘신선이 변형해 놓고 하늘에 오른 땅’이라는 뜻을 지녔다. 이로 보아 진경은 실경으로서의 경치 뿐만 아니라 ‘진경’의 의미까지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후기에 그려진 진경산수화의 대부분이 ㉠ 금강산을 비롯한 명승 고적에 초점을 맞춘 것도 다 이에 부합하는 사실이다.

진경산수화는 18세기의 ‘겸재 정선(謙齋 鄭勳)’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8세기는 근대적 의식이 싹트던 시기로, 우리 강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실제 사물에 대한 사실주의적 시각이 발현되기 시작하던 무렵이다. 이와 같은 근대적 의식은 전통적인 유교 이념과 결합하여 이상 세계를 우리나라의 산천에서 나타내 보려고 하는 생각이, 선경다운 경치를 담은 진경산수화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진경산수화 속에는 대개 그 화가가 동경하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 자신을 세워 놓고, 자신이 그 속을 소요하는\* 마음으로 그리는 경우가 많았다.

겸재 정선은 금강산과 서울 주변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자연을 재해석하였고 독창적인 표현의 진경산수화를 창출하여, 우리나라 회화의 신기원을 이룩하였다. 그는 18세기에 새로이 부상한 수묵 위주의 화풍인 남종화풍과, 풍속화의 경향 및 당시에 동양에 전파되기 시작한 서양화풍의 경향을 수용하여, 우리나라의 경관에 어울리는 독특한 화법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진경산수화의 화풍은 19세기로 접어들면서부터 흐트러지기 시작했다. 사회적으로 혼란한 시기였고, 서구 예술 사조가 급격하게 유입된 탓도 있지만, 기존의 진경산수화에서 보였던 자신감 넘치는 화풍이나 탁월한 미의식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경산수화는 당대의 현실과 세속을 사실감 있게 그려 낸 풍속화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미술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18세기 회화의 발달한 창조 정신, 주체적인 태도 등은 우리 식의 사실주의의 한 전범이 되어 우리 회화의 방향을 제시 해 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소요하는 : 자유롭게 이리저리 슬슬 거닐며 돌아다니는.

24. 윗글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중국의 명산인 여산을 대상으로 그린 산수화는 실제의 경치를 중시하지 않은 작품이다.
- ② 19세기의 진경산수화에는 18세기 진경산수화에서 두드러졌던 출중한 미의식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③ 조선 중기까지는 실제 사물을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것보다는 추상적인 자연을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④ 조선 후기의 미술계를 이끌었던 풍속화와 진경산수화는 대상을 사실적으로 그리려고 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 ⑤ 겸재 정선은 우리나라의 산천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하여 당대의 축적되어 있는 문화적 전통과 거리를 두려고 하였다.

25. 윗글로 미루어 볼 때 ㉠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마치 신선이 사는 것 같은 신비로운 경치를 지닌 곳
- ② 중국의 자연보다 더 뛰어난 기상을 보여줄 수 있는 곳
- ③ 우리나라의 산천이면서 신선이 사는 땅처럼 아름다운 곳
- ④ 우리나라의 화가가 직접 눈으로 경치를 완상할 수 있는 곳
- ⑤ 우리나라의 독창적인 화풍으로 그려 내기에 가장 적합한 곳

2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만폭동도’를 비평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만폭동도’는 겸재 정선이 금강산 만폭동 계곡의 풍경을 수묵으로 실감나게 그린 작품이다. 그림의 중앙에 보이는 바위 위에 동자를 거느리고 있는 선비가 손을 들어 먼 곳을 가리키는 있는데, 이 선비는 금강산의 모습과 함께 청정한 만폭동 계곡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 ① 겸재 정선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한 금강산 만폭동 계곡의 아름다운 모습을 ‘만폭동도’에 담아내려고 했겠군.
- ② 우리나라의 금강산 만폭동 계곡을 대상으로 그렸다는 점에서 우리의 산천에 대한 겸재 정선의 자부심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③ 금강산 만폭동 계곡의 생생한 경치를 수묵으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겸재 정선이 남종화풍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겠군.
- ④ 그림 중앙의 바위 위에 위치한 선비는 금강산 만폭동 계곡을 두루 돌아다니는 겸재 정선 자신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군.
- ⑤ 겸재 정선은 풍속화와 서양화풍의 경향을 ‘만폭동도’에 담아 각 화풍의 특징을 살리는 방식으로 실제의 금강산 만폭동 계곡을 표현하려고 했겠군.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케플러는 행성들이 원 궤도를 따라 공전한다는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을 수정하여, 행성들의 궤도가 타원형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타원이란 두 개의 초점이 있고 두 초점으로부터의 거리를 합한 값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으로, 케플러는 태양이 타원의 한 초점에 있으며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타원 궤도로 공전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또한 케플러는 행성들이 태양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제일 천천히 움직이고 가장 가까이 있을 때 제일 빨리 움직인다는 사실도 밝혔는데, ㉔ 이러한 사실들을 토대로 ㉕ ‘균시차’가 일어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태양의 실제 위치가 나타내는 시간을 ㉖ ‘겉보기태양시’라 한다. 태양이 정남쪽에 있을 때, 즉 하루 중에서 태양의 고도가 가장 높아 그림자의 길이가 가장 짧아질 때를 태양이 남중하였다고 하며, 이때를 ‘정오’라 한다. 해시계를 사용하여 겉보기태양시를 측정하는데, 태양의 궤도인 황도가 적도에 대하여 약 23° 기울어 있어서, 1년 동안 겉보기태양시에 따라 하루의 길이를 재 보면 항상 일정하지 않다. 이러한 겉보기태양시를 일상생활에 그대로 적용하면 불편하므로 겉보기태양시에 따른 하루의 길이를 1년 동안 집계하여 그 평균값으로 시간을 정하고, 이를 ㉗ ‘평균태양시’라 한다. 겉보기태양시와 평균태양시의 차이를 ‘균시차’라 하며, 균시차는 겉보기태양시에서 평균태양시를 뺀 값으로 나타낸다. 겉보기태양시와 평균태양시가 일치하는 날은 1년 중 단 며칠 밖에 되지 않으며, 11월 3일 경에는 겉보기태양시가 평균태양시보다 16분 24초 빠르고, 2월 11일 경에는 겉보기태양시가 평균태양시보다 14분 19초 느리다.

만약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공전하지 않거나 완벽한 원을 그리며 일정한 속력으로 공전한다면, 겉보기태양시의 하루의 길이가 변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구는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여 타원 궤도에 따라 태양의 주위를 돌며, 태양과 가장 가까운 지점인 근일점에서의 공전 속도는 태양과 가장 먼 지점인 원일점에서의 공전 속도보다 빠르다. ㉘ 따라서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근일점에서의 공전 거리는 원일점에서의 공전 거리보다 길고, 근일점에서는 길어진 공전 거리만큼 지구가 더 자전해야 겉보기태양시의 하루가 된다. 즉, 이동한 거리에 비례하여 지구가 더 돌아야 태양이 남중하기 때문에 겉보기태양시의 하루가 길어지게 되고, 겉보기태양시가 평균태양시보다 느려지면서 균시차가 나타난다. ㉙ 반면에 원일점에서는 공전 거리가 짧기 때문에 지구가 그만큼 덜 자전해도 태양이 남중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겉보기태양시의 하루가 짧아지게 되고, 겉보기태양시가 평균태양시보다 빨라지면서 균시차가 나타난다.

조선 세종대에 만들어진 ㉚ ‘양부일구’를 보고 시간을 읽으면, 우리가 손목시계로 보고 있는 시간과 일치하지 않는다. 우리의 손목시계가 나타내는 시간은 평균태양시에 따른 것이고 양부일구는 겉보기태양시를 측정하는 해시계이므로, 겉보기태양시와 평균태양시의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서로 시간이 맞지 않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가 현재 기준으로 삼고 있는 시간은 서울의 위치인 동경 127°가 아니라 도쿄의 위치인 동경 135°를 기준으로 하는 평균태양시이기 때문에, 양부일구가 나타내는 시간과는 다르다. 그래서 양부일구가 12시를 가리키고 있으면 현재 우리의 손목시계는 12시 35분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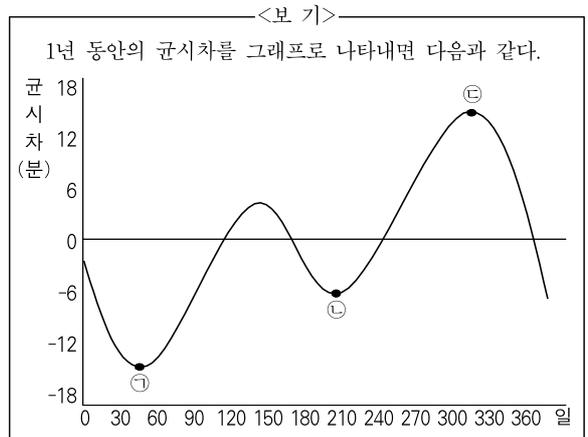
27. 윗글의 중심 화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겉보기태양시가 존재함에도 평균태양시를 사용하는 이유
- ② 겉보기태양시와 평균태양시의 관계에 대한 케플러의 견해
- ③ 조선 시대의 양부일구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균시차의 원리
- ④ 타원 궤도의 특징으로 인해 나타나는 균시차의 발생 원인
- ⑤ 천체들의 운동에 대한 코페르니쿠스와 케플러의 상이한 관점

28. 윗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양부일구로 읽어 낸 현재 시간이 15시 30분이라면, 이 시간이 다가 균시차를 더하여 평균태양시를 구할 수 있다.
- ② 태양의 고도가 높아지면서 그림자의 길이가 점점 짧아질수록 겉보기태양시와 평균태양시 사이의 격차가 줄어든다.
- ③ 도쿄는 서울보다 동쪽에 있으면서도 균시차가 더 크게 나타나므로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보다 빨리 볼 수 있다.
- ④ 지구가 근일점에 있을 때 손목시계로 본 현재 시간이 10시라면, 겉보기태양시는 아직 10시를 지나지 않은 상태에 있다.
- ⑤ 지구가 원일점에 있을 때 하루의 길이가 더 짧아지는 것은, 근일점에 있을 때보다 지구의 자전 속도가 느리기 때문이다.

2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탐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겉보기태양시와 평균태양시는 1년에 네 번 일치한다.
- ② ㉑에서는 평균태양시가 겉보기태양시보다 빠르다.
- ③ ㉓에서는 태양이 남중했을 때 평균태양시가 정오를 가리킨다.
- ④ ㉒에서는 평균태양시가 정오가 되기 이전에 태양이 남중한다.
- ⑤ 겉보기태양시와 평균태양시의 차이는 ㉓보다 ㉒에서 더 크다.

30. 윗글의 특성과 문맥을 고려할 때, ㉠~㉨를 활용한 독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내용 간의 논리적 관계를 따지는 것이 중요하므로 ㉠가 지시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봐야겠어.
- ②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핵심어인 ㉢, ㉣, ㉤가 윗글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확인해야겠어.
- ③ ㉢의 앞 문장에서 밝힌 내용에 대한 원인을 뒤 문장에서 정확하게 밝혀 주고 있는지 살펴봐야겠어.
- ④ 서로 반대되는 현상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로 이어진 앞뒤의 내용이 어떤 점에서 다른지 확인해야겠어.
- ⑤ 배경지식이 풍부해야 내용을 이해하기 쉬우므로 ㉧와 관련된 정보를 좀 더 찾아봐야겠어.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옥영은 왜병의 포로가 되고, 최척은 흩어진 가족을 찾아 헤매다가 명나라의 장수인 여유문과 함께 중국으로 간다. 일본에 잡혀간 옥영은 불심이 깊은 일본인을 만나 상선(商船)을 타고 다니면서 장사를 돕게 된다. 몇 년 후, 최척은 여유문이 죽자 촉(蜀)으로 가려고 한다.

때마침 주우(朱佑)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호를 학천(鶴川)이라고 했으며, 집이 용금문 밖에 있었다. 그는 경전(經典)과 사서(史書)에 두루 능통했으나 공명(功名)을 달갑게 여기지 아니하고 물건 매매를 생업으로 삼았으며,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고 의기(義氣)를 숭상하였다. 최척과는 예전부터 절친하게 지내는 사이였는데, 최척이 촉으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 술을 가지고 왔다. 주우는 술잔을 들고 최척의 자(字)를 부르며 말했다.

“백승아! 백승아!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들 오래 살고 싶지 않겠는가? 그러나 고금천하(古今天下)를 오래도록 보아 왔지만 죽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었는가?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된다고 음식을 물리치고 배고픔을 참는 등 스스로를 괴롭히면서 산에 사는 귀신과 이웃이 되려고 하는가? 자네는 모름지기 나에게 와서 나와 함께 사는 것이 좋겠네. 일엽편주에 몸을 싣고 오로지 마음이 내키는 대로 다니며, 아침 저녁으로 오(吳) 땅과 초(楚) 땅을 오가며 비단과 차를 팔고 다니세. 이렇게 강호를 유랑하며 남은 인생을 즐기는 것이 바로 달인의 경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상의 신선이 하늘에서 노니는 것을 배웠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최척은 주우의 말을 듣고 확연히 깨달은 바가 있었다. 그래서 주우와 함께 가게 되었는데, 이때가 경자년 늦봄이었다. 최척과 주우는 배를 타고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며 차를 팔다가 마침내 안남<sup>\*</sup>에 이르게 되었다. 이 때 일본인 상선 10여 척도 강 어구에 정박하여 10여 일을 함께 머물게 되었다.

날짜는 어느덧 4월 보름이 되어 있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고 물은 비단결처럼 빛났으며, 바람이 불지 않아 물결 또한 잔잔하였다. 이날 밤이 장차 깊어 가면서 밝은 달이 강에 비추고

열은 안개가 물 위에 어리었으며, 뱃사람들은 모두 깊은 잠에 빠지고 물세만이 간간이 울고 있었다. 이때 문득 일본인의 배 안에서 ㉠ 염불(念佛)하는 소리가 은은히 들려왔는데, 그 소리가 매우 구슬뻐다. 최척은 홀로 선창에 기대어 있다가 이 소리를 듣고 자신의 신세가 처량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즉시 행장(行裝)에서 피리를 꺼내 몇 곡을 불어서 가슴 속에 맺힌 회한을 풀었다. 때마침 바다와 하늘은 고요하고 구름과 안개가 걷히니, 애절한 가락과 그윽한 흐느낌이 ㉡ 피리 소리에 뒤섞이어 맑게 퍼져 나갔다. 이에 수많은 뱃사람들이 놀라 잠에서 깨어났으며, 그들은 처연하게 앉아 피리 소리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격분해서 머리가 곤추선 사람도 피리 소리에 분을 가라앉힐 정도였다.

잠시 후에 일본인의 배 안에서 조선말로 칠언절구(七言絶句)를 읊는 소리가 들렸다.

(중략)

“어디 안 좋은 곳이라도 있는가?”

최척은 대답을 하고 싶었으나 목이 메이고 눈물이 떨어져 말을 할 수 없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최척은 기운을 차려 말했다. “조금 전에 저 배 안에서 들려 왔던 시구(詩句)는 바로 내 아내가 손수 지은 것이라네. 다른 사람은 평생 저 시를 들어도 절대 알아내지 못할 것일세. 게다가 시를 읊는 소리마저 내 아내의 목소리와 너무 비슷해 절로 마음이 슬퍼진 것이라네. 어떻게 내 아내가 여기까지 와서 저 배 안에 있을 수 있겠나?” 이어서 온 가족이 포로로 잡혀간 일을 말하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비탄에 젖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그 가운데는 두홍(杜洪)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젊고 용맹한 장정이었다. 그는 최척의 말을 듣더니, 얼굴에 의기(義氣)를 띠고 주먹으로 노를 치면서 말했다.

“내가 가서 알아보고 오겠소.”

학천이 저지하며 말했다.

“깊은 밤에 시끄럽게 굴면 많은 사람들이 동요할까 두렵네. 내일 아침에 조용히 물어보아도 늦지 않을 것일세.”

주위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말했다.

최척은 앓은 채로 아침이 되기를 기다렸다. 동방이 밝아오자, 즉시 강둑을 내려가 일본인의 배에 이르러 조선말로 물었다.

“어젯밤에 시를 읊었던 사람은 조선 사람 아닙니까? 나도 조선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만나 보았으면 합니다. 멀리 다른 나라를 떠도는 사람이 비슷하게 생긴 고국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찌 기쁘기만 한 일이겠습니까?”

옥영도 어젯밤에 들려왔던 피리 소리가 조선의 곡조(曲調)인데다, 평소에 익히 들었던 것과 너무나 흡사하다 생각하였다. 그래서 남편 생각에 감회가 일어 저절로 시를 읊게 되었던 것이다. 옥영은 자기를 찾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는 황망하게 뛰어나와 최척을 보았다. 두 사람은 서로 마주 바라보고는 놀라 소리를 지르며 끌어안고 백사장을 뒹굴었다. 목이 메이고 기가 막혀 마음을 안정할 수가 없었으며, 말도 할 수 없었다.

- 조위한, 『최척전(崔陟傳)』

\* 안남 : 오늘날의 베트남 중북부 근처.

31.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최척’과 오래 전부터 벗이었던 ‘주우’는 세속적 삶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 ② ‘최척’은 같이 지내면서 여러 지역을 떠돌아다니자는 ‘주우’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 ③ ‘최척’은 일본인 상전에서 들려오는 칠언절구를 듣고 ‘옥영’이 읊고 있는 것이라 확신하였다.
- ④ ‘최척’의 사연을 듣고 나서 바로 일본인의 배로 가 보겠다는 ‘두홍’의 결정을 ‘주우’가 만류하였다.
- ⑤ ‘최척’과 ‘옥영’은 정유재란으로 인해 서로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다가 안남에서 극적으로 재회하였다.

32.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최척에게 심리적인 동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 ② ㉡은 최척의 애절한 심정을 더욱 슬프게 만들고 있다.
- ③ ㉠은 ㉡과 달리 소리를 내는 주체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 ④ ㉡은 ㉠과 달리 수많은 배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하고 있다.
- ⑤ ㉠은 최척으로 하여금 악기를 연주하게 하고, ㉡은 옥영으로 하여금 시를 읊게 만들고 있다.

3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조선 중기의 문신 조위한(趙緯韓)이 쓴 한문 소설 『최척전』은 기적 같은 최척 일가의 상봉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기이한 만남의 기록이라 하여 ‘기우록(奇遇錄)’이라고도 불리는 작품이다. 이 소설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등 국난을 겪는 동안 최척 일가와 주변 사람들이 겪는 기구한 삶을 사실적으로 다루고 있다. 거듭된 전란과 명, 청의 교체 등 역사적 사실에 토대하고 있으며, 작품의 공간적 배경을 국외로 넓혀 세상을 바라보는 당대인들의 시각이 확장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이 작품의 주제는 전쟁이라는 시련을 통해 깨달은 여러 가지 가치들을 되새겨보는 방향으로 설정되었으며, 전쟁으로 인한 시련을 스스로 극복하려는 노력이 작품의 주된 기능으로 부각되고 있다.

- ① 흩어진 가족을 찾아 헤매는 최척의 모습에서, 국가적 위기를 해소하려는 당대인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최척과 옥영이 우연히 재회하게 되는 장면에서, 이 작품이 왜 ‘기우록’이라고 불리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군.
- ③ 중국, 일본, 안남 등을 공간적 배경으로 설정한 것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당시 사람들의 확장된 시각을 읽어낼 수 있군.
- ④ 최척과 옥영의 파란만장한 삶의 내력에서, 전쟁으로 인해 민중들이 겪어야 했던 삶의 애환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군.
- ⑤ 전쟁으로 인하여 파괴된 가족공동체가 다시 회복되는 모습에서, 가족공동체의 소중함이 전쟁을 통해 깨달은 여러 가지 가치 중 하나임을 알 수 있군.

[34~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달빛이 흐드러지는 밤에, 왼손잡이인 허 생원은 조 선달, 동이와 함께 대화 장에 가기 위해 산길을 걷는다. 산길을 걸으며 허 생원은 조 선달에게, 젊은 시절 성 사방네 처녀와 인연을 맺었던 이야기를 하지만 동이에게는 그 이야기가 잘 안 들린다.

[산길]을 벗어나니 [큰길]로 뵈어졌다. 풍무니의 동이도 앞으로 나서 나귀들은 가로 늘어섰다.

“총각두 젊겠다, 지금이 한창 시절이렀다. 총각집에서는 그만 실수를 해서 그 꼴이 되었으나 쉽게 생각 말게.”

“치, 천만이에요. 되려 부끄러워요. 계집이란 지금 웬 제격인가요?”

㉠ **자나 깨나 어머니 생각뿐인데요.**”

허 생원의 이야기로 실심(失心)\*해한 끝이라 동이의 어조는 한풀 수그러진 것이었다.

“아버지 어미란 말에 가슴이 터지는 것도 같았으나 제겐 아버지가 없어요. 피붙이라고는 어머니 하나뿐인걸요.”

“돌아가셨나?”

“당초부터 없어요.”

“그런 법이 세상에.”

생원과 선달이 야단스럽게 걸걸들 웃으니, 동이는 정색하고 우길 수밖에 없었다.

“부끄러워서 말하지 않으려 했으나 정말예요. 제천 촌에서 달도 차지 않은 아이를 낳고 어머니는 집을 쫓겨났죠. 우스운 이야기나,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버지 얼굴도 본 적 없고 있는 고장도 모르고 지내 와요.”

고개가 앞에 놓인 까닭에 세 사람은 나귀를 내렸다. 둔덕은 험하고 입을 벌리기도 대근하여\* 이야기는 한동안 끊겼다. 나귀는 건똥하면 미끄러졌다. 허 생원은 숨이 차 몇 번이고 다리를 쉬지 않으면 안 되었다. 고개를 넘을 때마다 나이가 알렸다. 동이 같은 젊은 축이 그지없이 부러웠다. 땀이 등을 한바탕 쭉 씻어 내렸다.

고개 너머는 바로 [개울]이었다. 장마에 흘러 버린 널다리가 아직도 걸리지 않은 채로 있는 까닭에 벗고 건너야 되었다. 고의를 벗어 띠로 등에 얹어매고 반 벌거숭이의 우스꽝스러운 꼴로 물속에 뛰어들었다. 금방 땀을 흘린 뒤였으나 밤물은 뼈를 찢었다.

“그래, 대체 기르긴 누가 기르구?”

“어머니는 하는 수 없이 의부를 얻어 가서 술장사를 시작했죠. 술이 고주래서 의부라고 전 망나니예요. 철들어서부터 맞기 시작한 것이 하룬들 편한 날 있었을까? 어머니는 말리다가 차이고 맞고 칼부림을 당하곤 하니 집 꼴이 무어겠소. 열여덟 살 때 집을 뛰쳐나서부터 이 짓이죠.”

“총각 나새론 섬이 무던하다고 생각했더니 듣고 보니 딱한 신세로군.”

물은 깊어 허리까지 찼다. 속 물살도 어지간히 센 데다가 밭에 차이는 돌맹이도 미끄러워 금시에 훑칠 듯하였다. 나귀와 조 선달은 재빨리 거의 건넜으나, 동이는 허 생원을 붙드느라 두 사람은 훨씬 떨어졌다.

“모친의 친정은 원래부터 제천이었던가?”  
 “웬걸요, 시원스리 말은 안 해 주나, [봉평]이라는 것만은 들었죠.”  
 “봉평? 그래 그 아버 성은 무엇이구?”  
 “알 수 있나요? 도무지 듣지를 못했으니까.”  
 “그, 그렇겠지.”

하고 중얼거리며 흐려지는 눈을 까물까물하다가 허 생원은 경망하게도 발을 밟디뎠다. 앞으로 고꾸라지기가 바쁘게 몸뚱이 풍덩 빠져 버렸다. 허우적거릴수록 몸을 건잡을 수 없어, 동이가 소리를 치며 가까이 왔을 때에는 벌써 꺾이나 흘렀었다. 옷째 풀따 젖으니 물에 젖은 개보다도 참혹한 꼴이었다. 동이는 물속에서 어른을 해깝게\* 업을 수 있었다. 젖었다고는 하여도 여원 몸이라 장정 등에는 오히려 가벼웠다.

“이렇게까지 해서 안됐네. 내 오늘은 정신이 빠진 모양이야.”  
 “염려하실 것 없어요.”

“그래, 모친은 아버를 찾지는 않는 눈치지?”

“늘 한번 만나고 싶다고는 하는데요.”

“지금 어디 계신가?”

“의부외도 갈라져서 제천에 있죠. 가을에는 봉평에 모셔 오려고 생각 중인데요, 이를 물고 벌번 이력저력 살아갈 수 있겠죠.”  
 “아무렴, 기특한 생각이야. 가을이래?”

동이의 탐탁한 등어리가 뼈에 사무쳐 따뜻하다. 물을 다 건졌을 때에는 도리어 서글픈 생각에 좀 더 업혔으면도 하였다.

“진중일 실수만 하니 웬일이오, 생원?”

조 선달은 바라보며 기어이 웃음이 터졌다.

“나귀야. 나귀 생각하다 실족을 했어. 말 안 했던가? 저 꼴에 제법 새끼를 얻었다 말이지. 읍내 강릉집 피마에게 말일세. 귀를 쫑긋 세우고 달랑달랑 뛰는 것이 나귀새끼같이 귀여운 것이 있을까? 그것 보러 나는 일부러 읍내를 도는 때가 있다네.”

“사람을 물에 빠치울 쟈 탄은 대단한 나귀 새끼군.”

허 생원은 젖은 옷을 웬만큼 짜서 입었다. 이가 덜덜 갈리고 가슴이 떨리며 몸시도 추웠으나, 마음은 알 수 없이 동실동실 가벼웠다.

“주막까지 부지런히들 가세나. 뜰에 불을 피우고 훗훗이 쉬어. 나귀에게 더운물을 끓여 주고 내일 [대화] 장 보고는 [제천]이다.”

“생원도 제천으로……?”

“오래간만에 가 보고 싶어. 동행하러나, 동이?”

나귀가 걷기 시작하였을 때, 동이의 체적은 왼손에 있었다. 오랫동안 아득시니\*같이 눈이 어둡던 허 생원도 요번만은 동이의 왼손잡이가 눈에 뜨이지 않을 수 없었다.

걸음도 해깝고 방울 소리가 밤 벌판에 한층 청청하게 울렸다. 달이 어지간히 기울어졌다.

- 이효석, 『메밀꽃 필 무렵』

- \* 실심 : 근심 걱정으로 맥이 빠지고 마음이 산란하여짐.
- \* 대근하여 : 견디기가 어지간히 힘들고 만만하지 않아.
- \* 해깝게 : '가볍게'의 방언.
- \* 아득시니 : 눈이 어두워 사물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

34.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②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여 사건을 생동감 있게 제시하고 있다.
- ③ 잦은 장면 전환을 통해 인물들 사이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 ④ 인물의 표정 변화와 내면 변화를 달리 서술하여 인물의 특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⑤ 공간적 배경에 따라 서술자를 교체하여 사건의 전개에 속도감을 부여하고 있다.

35. 윗글의 공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산길]에서와 다르게 [큰길]에서는 허 생원, 조 선달, 동이가 모두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
- ② 허 생원은 [산길]에서는 자신의 과거를 말하고 있고, [큰길]에서는 동이의 사연을 듣고 있다.
- ③ [개울]에서는 [산길]과 [큰길]에 비해 허 생원과 동이 사이의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다.
- ④ [봉평]은 동이의 어머니가 과거에 머물렀던 공간이고, [제천]은 동이의 어머니가 현재에 머무르고 있는 공간이다.
- ⑤ [대화]와 [제천]은 모두 [개울]에서 나는 대화로 인해 정해진 목적지이다.

36.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메밀꽃 필 무렵』은 허 생원과 성 서방네 처녀의 이야기, 동이와 동이 어머니의 이야기, 허 생원과 동이의 이야기가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배경 아래에 복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부자 상봉 모티프를 바탕으로 하여 장돌뱅이 삶의 애환과 낭만적 추억을 이야기하고 있다.

- ① 두 번이나 배우자와 헤어진 동이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 동이 어머니의 삶이 순탄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군.
- ② 허 생원은 성 서방네 처녀와 동이 어머니가 동일한 인물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제천으로 향하려 하는군.
- ③ 산길을 걷고 고개를 힘겹게 넘어가는 허 생원의 모습을 통해, 장돌뱅이로 유랑하는 허 생원의 삶의 여정을 엿볼 수 있군.
- ④ 허 생원과 동이 서로가 혈연관계임을 인지하는 모습을 통해, 이 소설에 부자 상봉 모티프가 활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허 생원과 동이가 달빛이 흐드러지는 낭만적인 배경 아래에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으로 설정하여, 작품의 서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군.

37. ㉠을 나타낸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오매불망(寤寐不忘)                      ② 동병상련(同病相憐)
- ③ 맥수지탄(麥秀之嘆)                    ④ 사필귀정(事必歸正)
- ⑤ 혼비백산(魂飛魄散)

[38~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고산 구곡담(高山九曲潭)을 사람이 모르더니  
**터 닦아 집 지으니** 벗님네 다 오신다  
 어즈버 무이(武夷)\*를 상상하고 학주자(學朱子)를 하리라  
 <제1수>

일곡(一曲)은 어디인가 관암(冠巖)에 해 비친다  
**들판에 안개 걷히니 원근(遠近)이 그림이로다**  
 ㉠ 송간(松間)에 술동이를 놓고 벗 오는 양 보노라 <제2수>

이곡(二曲)은 어디인가 **화암(花巖)에 춘만(春晚)커다**  
 벽파(碧波)에 꽃을 띄워 **야외(野外)**로 보내노라  
 사람이 승지(勝地)를 모르니 알게 한들 어찌리 <제3수>

삼곡(三曲)은 어디인가 취병(翠屏)\*에 잎 퍼졌다  
 녹수(綠樹)에 산새는 아래위로 지저귄 때  
 ㉡ 반송(盤松)\*이 바람을 받으니 여름 풍경이 이에 더 없으라  
 <제4수>

오곡(五曲)은 어디인가 은병(隱屏)이 보기 좋다  
 ㉢ 수변정사(水邊精舍)는 깨끗함이 끝없구나  
 이 중에 **강학(講學)도 하려니와 영월음풍(咏月吟風)하리라**  
 <제6수>

육곡(七曲)은 어디인가 조협(釣峽)\*에 물이 넓다  
 나와 고기와 누가 더욱 즐기는가  
 ㉣ 황혼(黃昏)에 낚싯대 메고 달빛 받아 돌아온다 <제7수>

구곡(九曲)은 어디인가 문산(文山)에 해 저문다  
**기암괴석(奇巖怪石)이 눈 속에 묻혔구나**  
 ㉤ 사람은 오지 아니하고 볼 것 없다 하더라 <제10수>  
 - 이이, 『고산구곡가(高山九曲歌)』

\* 무이 : 중국 복건성(福建省)에 있는 산. 주자가 학문을 닦은 곳.  
 \* 취병 : 푸른 병풍 같은 절벽.  
 \* 반송 : 키가 작고 옆으로 퍼진 소나무.  
 \* 조협 : 낚시하는 골짜기.

3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에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의 무상감을 심화하고 있다.
- ②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확대해 가면서 화자의 심리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 ③ 역설적 표현을 활용하여 지향하는 세계에 대한 강력한 열망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의인화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친밀감을 표출하고 있다.
- ⑤ 구조가 유사한 문장 형식을 반복하여 작품 전체에 형식적인 통일성을 부여하고 있다.

39.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 술을 마시면서 내적 갈등을 해소하고 싶어 하는 화자의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 여름의 경치를 세밀하게 묘사하여 자연의 섭리에 대한 깨달음을 설의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 : 화자의 무심한 심정을 수변정사에 투영하여 숭고한 삶을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 해가 질 때인 황혼을 시간적 배경으로 제시하여 세월이 흘러가는 것에 대한 서글픔을 비유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 : 현재의 자신과 같은 태도를 보이지 않는 상대에 대하여 아쉬움을 느끼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40.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고산구곡가(高山九曲歌)』는 율곡 이이가 벼슬에서 물러나 황해도 해주에서 제자들의 교육에 힘쓰고 있을 때, 그곳에서의 생활을 노래한 것이다. 이곳에서 시적 화자는 발견의 기쁨을 드러내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이 이곳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아쉬워하고 있다.

율곡은 산수(山水)의 아름다움만 알고 그 안에 담긴 도체(道體)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산수(山水)를 아는 것에 귀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즉, 자연을 볼 때에는 그 안에 담긴 도학적인 진리를 함께 볼 수 있어야 진정한 즐거움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율곡은 자연 속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학문의 연마를 통해 도학적인 이상을 함께 추구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 ① ‘터 닦아 집 지으니’는 아름다운 자연에 터를 잡았다는 뜻도 되지만, 학문을 닦을 곳을 마련했다는 의미도 담겨 있겠군.
- ② ‘들판에 안개 걷히니 원근(遠近)이 그림이로다.’는 안개가 점점 걷히면서 드러난 들판의 경치가 아름답다는 뜻도 되지만, 도학적인 진리를 깨달아 가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겠군.
- ③ ‘화암(花巖)에 춘만(春晚)커다’라고 표현된 ‘야외(野外)’는 산수의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있는 탈속적인 공간이면서, ‘도체(道體)’가 내재되어 있는 이상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④ ‘강학(講學)도 하려니와 영월음풍(咏月吟風)하리라’에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면서도, 학문을 갈고 닦아 도학적인 이상을 추구하겠다는 화자의 능동적인 태도가 드러나 있겠군.
- ⑤ ‘기암괴석(奇巖怪石)이 눈 속에 묻혔구나’는 아름다운 자연이 눈 속에 묻혀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다는 의미이면서, 학문의 깊고 오묘한 즐거움이 감추어져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겠군.

[41~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서서  
차라리 봄도 꽃피진 말아라.

낮은 거미집 휘두르고  
끝없는 꿈길에 혼자 설레이는  
마음은 아예 뉘우침 아니라.

검은 그림자 쓸쓸하면  
마침내 호수 속 깊이 거꾸러져  
차마 바람도 흔들진 못해라.

- 이육사, 「교목」 -

(나)

어두운 방안엔  
바알간 숯불이 피고,  
외로이 늙으신 할머니가  
에처로이 잣아드는 어린 목숨을 지키고 계시었다.

[A]

이윽고 눈 속을  
아버지가 약(藥)을 가지고 돌아오시었다.

[B]

아,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따오신  
그 붉은 산수유 열매—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  
젊은 아버지의 서느런 옷자락에  
열(熱)로 상기한 불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

[C]

이따금 뒷문을 눈이 치고 있었다.  
그날 밤이 어찌면 성탄제의 밤이었을지도 모른다.

어느새 나도  
그때의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다.

[D]

옛것이라곤 찾아볼 길 없는  
성탄제 가까운 도시에는  
이제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이 내리는데,

서러운 서른 살 나의 이마에  
불현듯 아버지의 서느런 옷자락을 느끼는 것은,

[E]

눈 속에 따오신 산수유 붉은 알알이  
아직도 내 혈액 속에 녹아 흐르는 까닭일까.

- 김종길, 「성탄제」 -

4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화자의 현재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 ② 유사한 시구를 점층적으로 변주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③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대상을 생동감 있게 제시하고 있다.
- ④ 과거 회상을 통해 화자 자신을 반성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 ⑤ 공간의 대비를 통해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드러내고 있다.

42.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교목」은 줄기가 곧고 곧으며 높이 자라는 나무인 ‘교목’을 통해, 어떠한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겠다는 시인의 강인한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 외적인 유희와 고난 앞에서 꽃을 피우는 생명 작용까지도 거부하고 마침내는 호수 속에 거꾸러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으려는 ‘교목’의 모습은, 일제 강점기라는 암담한 현실 속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했던 이육사 자신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 ① ‘푸른 하늘’은 높이 자라는 교목이 향하는 공간이면서, 시인이 지향하는 세계라고도 할 수 있군.
- ② ‘끝없는 꿈길에 혼자 설레이는’에는 조국의 독립을 염원하는 시인의 기대감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군.
- ③ 각 연을 ‘말아라’, ‘아니라’, ‘못해라’와 같이 부정어로 종결하여,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려는 강인한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군.
- ④ 시간의 흐름에 따라 1연~3연을 배치하여, 조국의 독립을 희망하는 화자의 의식이 점점 성숙해 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군.
- ⑤ ‘호수 속 깊이 거꾸러’진다는 하강의 이미지를 사용하였지만, 부정적인 현실에 맞서고자 하는 화자의 대결 의지를 오히려 더 강화하고 있군.

43. (나)를 영상시로 제작하고자 할 때, [A]~[E]에 대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 ‘나’를 안타깝게 바라보는 할머니의 얼굴을 확대하여 촬영하면, 손자의 캐율을 바라는 할머니의 간절한 심정을 부각할 수 있겠어.
- ② [B] : 방문(房門)을 보여 준 이후 그 방문으로 아버지가 붉은 산수유 열매를 든 채로 다급하게 들어오는 모습을 촬영하면, 카메라가 아버지의 시선을 대변할 수 있겠어.
- ③ [C] : 뒷문에 눈이 내리는 풍경에 현재에 눈이 내리는 풍경을 서서히 나타나게 하여 겹치게 하면, 과거에서 현재로 시간이 흘러감을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겠어.
- ④ [D] : ‘나’가 성탄제의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도시를 쓸쓸한 표정으로 걷고 있다가 ‘눈’을 보고 기쁜 표정을 짓는 장면에서 포근한 느낌을 주는 배경 음악을 삽입하면, 상황을 보다 실감나게 전달할 수 있겠어.
- ⑤ [E] : 서른 살이 된 ‘나’의 얼굴 위로 아버지의 옷자락과 붉은 산수유 열매를 은은하게 나타내면,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나’의 애절한 정서를 감각적으로 형상화할 수 있겠어.

[44~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오재(守吾齋), 즉 ‘나를 지키는 집’은 큰형님이 자신의 집에 붙인 이름이다. 나는 처음 그 이름을 보고 의아하게 여기며, ‘나와 단단히 뗄어져 서로 떠날 수 없기로는 ‘나’보다 더한 게 없다. 비록 지키지 않는다 한들 ‘나’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상한 이름이다.’라고 생각했다.

장기\*로 귀양 온 이후 나는 홀로 지내며 생각이 깊어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러한 의문점에 대해 환히 깨달을 수 있었다. 나는 별떡 일어나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천하 만물 중에 지켜야 할 것은 오직 ‘나’뿐이다. 내 발을 지고 도망갈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니 발은 지킬 필요가 없다. 내 집을 지고 달아날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니 집은 지킬 필요가 없다. 내 동산의 꽃나무와 과일나무들을 뽑아 갈 수 있겠는가? 나무뿌리는 땅속 깊이 박혀 있다. 내 책을 훔쳐 가서 없애 버릴 수 있겠는가? 성현(聖賢)의 경전은 세상에 널리 퍼져 물과 불처럼 흔한데 누가 능히 없앨 수 있겠는가.

<중략>

따라서 천하 만물 중에 꼭 지켜야만 하는 것은 없다. 그러나 유독 이 ‘나’라는 것은 그 성품이 달아나기를 잘하며 출입이 무상하다. 아주 친하게 붙어 있어 서로 배반하지 못할 것 같지만 잠시라도 살피지 않으면 어느 곳이든 가지 않는 곳이 없다. 이익으로 유혹하면 떠나가고, 위협과 재앙으로 겁을 주면 떠나가며, 질탕한\* 음악 소리만 들어도 떠나가고, 미인의 예쁜 얼굴과 요염한 자태만 보아도 떠나간다. 그런데 한번 떠나가면 돌아올 줄 몰라 붙잡아 만류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천하 만물 중에 잃어버리기 쉬운 것으로는 ‘나’보다 더한 것이 없다. 그러니 퐁퐁 뭉고 자물쇠로 잠가 ‘나’를 굳게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나는 ‘나’를 허투루 간수했다가 ‘나’를 잃은 사람이다. 어렸을 때는 과거 시험을 좋게 여겨 그 공부에 빠져 있었던 것이 10년이다. 마침내 조정에 나아가 사모관대에 비단 도포를 입고 백주 대로를 미친 듯 바쁘게 돌아다니며 12년을 보냈다. 그러다가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 친척을 버리고 고향을 떠나 한강을 건너고 문경 새재를 넘어 아득한 바닷가 대나무 숲이 있는 곳에 이르러서야 멈추게 되었다. 이때 ‘나’도 땀을 흘리고 숨을 몰아쉬며 허둥지둥 내 발뒤꿈치를 쫓아 함께 이곳에 오게 되었다. 나는 ‘나’에게 말했다.

“너는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왔는가? 여우나 도깨비에게 홀려서 왔는가? 바다의 신이 불러서 왔는가? 너의 가족과 이웃이 소내\*에 있는데, 어째서 그 본고장으로 돌아가지 않는가?”

그러나 ‘나’는 멍하니 꼼짝도 않고 돌아갈 줄을 몰랐다. 그 안색을 보니 마치 엄매인 게 있어 돌아가려 해도 돌아갈 수 없는 듯했다. 그래서 ‘나’를 붙잡아 함께 머무르게 되었다.

이 무렵, 내 둘째 형님 또한 그 ‘나’를 잃고 남해의 섬으로 가셨는데, 역시 ‘나’를 붙잡아 함께 그곳에 머무르게 되었다.

유독 내 큰형님만이 ‘나’를 잃지 않고 편안히 수오재에 단정하게 앉아 계신다. 본디부터 지키는 바가 있어 ‘나’를 잃지 않은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것이야말로 큰형님이 자신의 집 이름을 ‘수오’라고 붙이신 까닭일 것이다.

- 정약용, 「수오재기」 -

- \* 장기 : 경상북도 포항시 장기면.
- \* 질탕한 : 신이 나서 정도가 지나치도록 흥겨운.
- \* 소내 : 현재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마현 마을.

4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벌어진 두 개의 사건을 병치하고 있다.
- ②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관조하는 대상을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③ 성현의 말을 재해석한 후 자신의 생각과 타인의 생각을 비교하고 있다.
- ④ 관념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지나온 삶에 대한 회한과 탄식을 표현하고 있다.
- ⑤ 스스로 의문을 제기한 후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사실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45. 윗글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글쓴이는 천하 만물과 대비되는 ‘나’의 특성을 언급하면서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을 부각하고 있군.
- ② 글쓴이는 유배를 가기 전의 12년 동안 관직에 나아가 열심히 일을 했던 스스로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군.
- ③ 글쓴이는 ‘나’를 지키지 못하여 남해의 섬으로 유배를 간 둘째 형님에 대하여 안타까움과 함께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군.
- ④ 글쓴이는 ‘나’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나’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군.
- ⑤ 글쓴이는 ‘나’를 잃지 않고 살아온 자신의 삶을 만족스럽다고 평가한 큰형님을 떠올리며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태도를 강조하고 있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